
월간 일본 수산 동향

2021년 10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본 수산 동향

- (1) 일본 수산청, 참다랑어 어획 쿼터 증가 대응 01
 - (2) 도쿄 지속가능한 씨푸드 씨밋 2021
 - 자원관리를 위한 전자모니터링 기술 03
 - 중국의 IUU 어업 06
 - (3) 홋카이도 동쪽 연안, 적조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 08
-

일본 수산 동향

(1) 일본 수산청, 참다랑어 쿼터 증가 대응

일본 수산청은 내년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가를 고려, 늘어나게될 쿼터를 일본 국내 각 어업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 배분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근해 연승 어업에 대해 추가적인 분배를 검토하고 있다.

- 일본 수산청은 수산정책심의회 자원관리 분과회 참다랑어 작업반 회의를 개최
- 내년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늘어나게 될 쿼터를 일본 국내 각 어업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
- (주요 내용)
 - 태평양 참다랑어 소형어 (30kg 미만) 쿼터를 경제가치나 자원보존 효과가 높은 대형어 쿼터로 400톤 이상 대체
 - 근해 연승을 중심으로 하는 참치어업에 증가분을 추가적으로 분배
 - 일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분 축소
- 각 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수량은 11월 말~12월 초 수산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
- 기존의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마릿수의 98% 이상은 미성숙한 소형어에 편중되어 있어, 산란 친어 부족과 자원 감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음
- 그러나 2015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가 어획규제를 강화

- 규제는 소형어에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 이후, 산란 친어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자원회복을 고려하여 이번 달 WCPFC 소위원회는 내년 이후 대형어 쿼터를 15% 증가시키는데 합의
- 소형어가 많이 잡히지 않은 채로 대형어로 성장하면 산란을 할 수 있는 친어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당한 기름기나 1마리 당 크기도 향상되어 상품 가치도 올라감
- WCPFC북소위에서 소형어 쿼터의 10% 상한에 1.47배 환산하여 대형어로 대체 하자는 새로운 규칙에도 합의
- 일본 수산청은 소형어 쿼터 중 400톤 이상을 메리트가 큰 대형어 쿼터로 대체하자는 목표를 거론
- 또한, 현재 근해 연승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랑어 어업의 어획 삭감률이 타 어업에 비해 높으며 쿼터를 증가시킬 때에는 근해 연승 어업에 쿼터를 더 많이 배분하자는 방침을 제시

*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6908>

일본 수산 동향

(2) 도쿄 지속가능한 씨푸드 써밋 2021

- 자원관리를 위한 전자모니터링 기술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Tokyo Sustainable Seafood Summit 2021”이 개최되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자원관리에 도입하는 사례를 소개했으며, 바닷새 혼획 방지를 위한 전자모니터링 사례 등을 소개했다.

- “도쿄 지속가능한 씨푸드 서밋 2021”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자원관리에 도입하는 사례를 소개 (10.11)
 - 노르웨이 수산물 심의회(NSC)는 어선 1척당 어획량, 어종 등 디지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화, 어업 규제 위반 방지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
 - “투명성을 높여, 다른 어업 관계자가 보기에 불조리한 일처리, 불법이 없다고 판단, 자원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
 - 노르웨이는 '87년부터 어류 폐기를 금지, 연안 경비대에 의한 감시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음
 - 고등어 어업에서 어선에 탑재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어업정보를 수집, 중량, 크기를 확인하여 “적절한 크기와 중량의 고등어”를 찾아 어획할 수 있음
 - 어업 관계자는 정부의 수산 담당청에 어획정보를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어획량, 어장 규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음
-

- 데이터를 공개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어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원관리를 통해 어획이 향상되는 것을 알고, 반대는 금방 사라졌다고 함
- 전자모니터링 (EM)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Archipelago Marine Research社에 따르면, GPS, 카메라, 어구 센서 등을 활용, 투망 등 어업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소개
- 어종과 어획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자원관리 및 이력추적 (traceability) 확보로도 연결될 수 있음
- 투망 시 혼획 회피 장치가 작동했는지 등을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음
- 실제로 미국 알래스카주의 바다표범 어업, 호주의 참치, 청새치의 원양 연승 어업에 도입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척에 시험적으로 도입될 예정
- 업계 당사자가 장기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의 이점을 더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
- NGO, 바닷새 혼획 피해를 위한 대책으로 EM 검토 긍정적
- 국제 환경 NGO, BirdLife International는 바닷새의 혼획을 줄이기 위해 EM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
- 현재 전세계 바닷새 360종 중 100여 종이 어선에 의한 혼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50종이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혼획을 개선할 수 없으면 향후 30년 이내에 복수 종이 멸종 우려

- 현재 모든 참치 관련 지역수산기구 (RFMOs) 연승선에 대해 바닷새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오퍼 승선률이 5% 이상이면 된다고 하여 95%는 규제준수 실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자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비디오 케미라, 센서로 혼획 모니터링, 위성 활용 바닷새에 피해가 적다고 간주되는 야간투망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 BirdLife International과 CCSB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22~'25년에 전자모니터링을 포함한 원격 감시 시스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BirdLife International 바닷새 혼획 회피는 아직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전자모니터링을 도입하게 된다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
- 업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자모니터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7141>

일본 수산 동향

(2) 도쿄 지속가능한 씨푸드 써밋 2021

- IUU 어업

Tokyo Sustainable Seafood Summit 2021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을 테마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IUU 관련 규제 개선, EU와 일본의 IUU 어획물에 대한 법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 NGO Qingdao Marine Conservation Society 왕 회장은 “중국에서의 EU의 IUU어업 규칙 시행”을 주제로 중국에서의 IUU 어업 대응에 대해 발표
 - 원양에서 IUU 어업을 한 어선에의 보조금 취소 등의 벌칙을 작년 4월부터 강화
 -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휴어 기간 설정, 남서 대서양 해역의 트롤어업 단계적 폐지와 같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을 설명
 - 중국정부의 현재 대응으로 범위를 저지른 어선 몰수, TAC를 기반으로 한 보다 엄격한 어획 관리 도입 등 “더 엄격한 어업 활동 감시로 투명성 담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 유럽연합 (EU)에서는 2010년부터 모든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 첨부을 의무화해 IUU 어업으로 어획된 어획물이 EU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일본 수산청 가공유통과 이가라시 과장은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산유통 적정화법 개요를 설명

- 대상 어획물에 붙이는 어획번호를 생산지에서 말단까지 전달하는 것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부분을 감안, 서류 기입 공정을 생략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전자화할 것이라고 함

*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7240>

일본 수산 동향

(3) 홋카이도 동쪽 연안, 적조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

러시아 한류를 타고 내려온 유해 플랑크톤으로 일본 홋카이도 근해에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플랑크톤이 일본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 홋카이도 동부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적조에 대해,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수산과학연구원 및 동대학 수산학부 연구팀은 적조를 발생시킨 플랑크톤이 러시아 해역에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제시, 홈페이지에 공표
 - 수산학부 연습선은 5~13일 실시한 조사 항해에서 일본 홋카이도 동쪽 근해의 적조를 횡단적으로 관측함
 - 홋카이도 앓케시 근해에서 수온, 염분, 조류의 방향과 속도, 영양염 등의 화학성분, 식물 플랑크톤 농도나 종 샘플을 채취
- 근해의 여러 지점에서 해면이 갈색~검정색으로 보이는 띠 형태의 짙은 적조를 관측했음
- 표층에서 수심 20m 부근까지 높은 농도의 식물 플랑크톤의 존재가 확인되어, 해수 수온 염분 특성상 오야시오 (親潮) 한류의 영향일 것으로 보고, 발생원은 분명치 않지만, 러시아 해역으로부터의 오야시오를 따라 남하한 것으로 보임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관측위성 화상에서 바닷속의 식물 플랑크톤 양을 분석
 - 9월 초부터 식물 플랑크톤 농도가 증가, 홋카이도 동쪽 근해에서 대량으로 증식
 - 10월에는 홋카이도 근해 여러 지역에서 특이한 식물 플랑크톤이 고농도로 관측됨
- 홋카이도와 일본정부의 조사에서 홋카이도 근해의 적조현상의 원인 플랑크톤은 유해 플랑크톤인 '칼레니아 셀리포르미스(Karenia selliformis)'로 밝혀짐
 - 온도가 낮은 해역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 플랑크톤으로 작년 가을 러시아 극동해역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
-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적조로 인한 어업 피해에 관해 홋카이도는 10월 27일, 문어, 해삼 등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여러 해에 걸쳐 최대 90억 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됨
- 22일 시점에서 판명되어 있는 피해금액은 성게와 연어 등 약 77억엔, 이 금액을 합치면 최대 피해액은 170억 엔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7336>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7050>